동북아 한-중-일 삼국의 고사성어 비교연구

인문대학 국어국문학과 명예교수 이상억

I. 예비 연구

이 연구 작업에 쓰기 위해 임의로 뽑은 180개의 한국의 고사성어를 일본의 광사원(廣辭苑) 사전에 등재되었는가 검토하니 96개의 소재가 집계되었는데, 총 180개로 나누면 약 53.3%의 한/일 공유율이 나온다.

한편 180개의 고사성어를 '중국 고사성어 온라인 사전' https://www.mdbg.net/ chindict/chindict.php?page=worddict&wdqb=idiom&wdrst=0#의 5230항에 비추어 체킹한 결과 33개만 한국어와 공유, 즉 33/180=18.4%의 한/중 공유율이 나온다. 그러나 이 사전과 달리 다른 두 학자(아래 본 연구)의 검토를 보면 훨씬 높은 공유율이 나온다.

위와 같은 차이는 예상 외로, 많은 고사성어가 중국의 고전을 바탕으로 형성된 사실을 감안하면 한/중 공유율이 더 높을 것이기 때문이다. 여기에서 일본 강점기에 교육을 통해 일본식 고사성어가 한국어에 대폭 침투했으리라는 추측을 할 수도 있다.[1] 앞으로 많은 자료를 시기별로 비교해서 영향 과정을 면밀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

또한 한-일어는 SOV 어순이지만 중국어는 SVO 어순이어서, 원래 중국어에서 '불성(不省)인사(人事)'라는 4자성어가 한-일어에서 '인사(人事)불성(不省)'으로 바뀐 것도 공유율에 변화를 주었을 것이다. 마찬가지로 VO '노출(露出)마각(馬脚)'도 OV '마각(馬脚)노출(露出)'로 바뀌었다.

역사적으로 같은 식의 4자성어를 쓰는 월남어에서도 흥미로운 양상이 보이는데, 가령 '정저지와(井底之蛙)'를 중국어 그대로 '수식어 Att. + 피수식어 Head'의 순으로 쓰기도 하지만 월남어식으로 '와좌저정(蛙坐底井)'이라고 좌(坐)를 넣으면서 '피수식어 + 수식어'의 순으로 바꿔 말하기(paraphrase)를 한다.

---

1) 불쾌지수(不快指數)라는 4자성어는 원래 영어 용어 discomfort index가 일본에 도입되어 번역된 뒤 1961년 6월 1일부터 일본 기상청에서 쓰기 시작하여 일반화되었다 한다. 이 경우는 1945년 이후 한참 지나서 일본에서 만들어진 4자성어가 언젠가 한국에까지 도달한 것이다. 이한섭(2014) 일본어에서 온 우리말 사전, 서울: 고려대 출판부. [더 많은 예는 後註에]

II. 본 연구

위에서 예상 외의 차이가 보였던 이유를 구명하기 위해, 다시 본격적으로 중국, 한국, 일본의 고사성어를 일일이 전문가가 검토하도록 해 본다.

중국 黃得森(Wong Tak-sum) 先生과 일본 石橋道秀(Ishibashi Michihide) 先生에 의해, 4단계로 180항의 평가를 받았다. 그 4단계는 다음과 같다.

◎ 거의 동형이며 같은 의미로 쓰임. 어순이 다른 것을 포함. 일반적으로 쓰는 말(일본의 경우, 광사원에 있음).
○ 한자가 다르나 같은 의미로 쓰임. 이해 할 수 있는 말(광사원에 다른 어형으로 나타남).
△ 고전에서 문학적 표현으로만 쓰임. △은 일본 국어대사전(약45만어 실림)에 있음. 한문(漢文)적 표현으로 쓰임. 글을 보면 이해 할 수 있는 말(광사원에 없음).[2)]
× 의미를 이해하지 못함. 이해 할 수 없는 말(광사원에 없음). [아래 집계에서는 직접 나타나지 않고 잠재적으로 반영이 됨.]

1. 한중일 3국 통용(77항, 42.8%)

◎, ○, △를 다 포함하는 포괄적 집계다. 이 중 중국어와 일본어가 모두 ◎◎인 19항에는 밑줄을 그었다. ○◎로 표시된 항목은 왼쪽 ○가 중국학자에 의해 평가된 것이고, 오른쪽 ◎가 일본학자에 의해 검토된 결과다. 이렇게 좌우로 두 표시가 된 것은 중일 학자의 각개 검토 결과를 말한다.

博學多識○◎ 千篇一律◎◎ 千載一遇○◎ 千慮一失◎△ 千慮一得△△ 三十六計◎◎
十年之計○◎[3)] 十目所視△△ 聞一知十△◎[4)] 九死一生◎◎[5)] 九牛一毛◎◎[6)] 七顚八倒○○[7)]

---

2) 일본의 경우 '고전에서 문학적인 표현'이라 하면, 근세 이전에 쓰인 고어를 바탕으로 된 문장을 의미하며, 그 단어가 한문적인 것인지 검토해야 한다. 기준은 '일본국어대사전' 게재의 유무로 했다.
3) 十年の計로 쓰임.
4) 一を聞いて十を知る로 쓰임. 그냥 어순이 다르다.
5) 九死に一生を得る로 쓰임.
6) 九牛の一毛로 쓰임.
7) 일어는 七転八倒로 쓰임.

七縱七擒◎△ 竹林七賢◎◎[8] 五風十雨△△ 五臟六腑◎◎ 四通八達◎△ 四通五達△△
四分五裂◎◎ 四面楚歌◎◎ 士農工商◎◎ 朝三暮四◎◎ 張三李四◎△ 狡兎三窟◎△
正正堂堂◎◎ 戰戰兢兢◎◎ 玉石混淆△◎ 外柔內剛◎◎ 雲中白鶴△△ 錦上添花◎△
桑田碧海○△ 靑天白日◎◎ 自問自答◎◎ 自暴自棄◎◎ 自畵自讚○◎ 以管窺天○△
肉山脯林△△ 忠言逆耳◎△ 屍山血海○△ 允文允武△△ 異口同聲◎○[9] 以毒制毒○△
以卵投石○△ 異床同夢○△[10] 瓜田李下◎△ 大同小異◎◎ 大慈大悲◎△ 勢利之交○△
釜中之魚△△ 金石之交◎△ 半生半死○△[11] 半信半疑◎◎ 半僧半俗○△ 滄海一粟◎△
先公後私○◎ 先憂後樂○△ 屋下架屋○△ 畵中之餠○△ 眼中之釘○△ 井底之蛙◎△
言行一致◎◎ 一喜一悲△○[12] 一饋十起△△ 一朝一夕◎◎ 一長一短△◎ 一張一弛△△
一夫一妻○◎ 一石二鳥◎◎ 一龍一蛇△△ 一日三秋○△ 百折不撓◎◎ 十中八九○◎
同苦同樂○△ 東西古今○○ 以卵擊石◎△[13] 釜中生魚△△[14] 雪上加霜◎○

2. 한중 2국 통용(45항, 25.0%)

去頭截尾◎ 甘呑苦吐○ 多聞博識○ 千鷄一鳳○ 七零八落◎ 外親內疎○ 外虛內實○
交淺言深△ 人山人海◎ 集小成大○ 以羊易牛◎ 易如反掌◎ 已往之事○ 以實直告○
已發之矢○ 二人同心○ 紅爐點雪△ 雪上加霜◎ 先禮後學○ 舌芒於劍△ 烏飛兎走△
眼高手卑○ 飛禽走獸◎ 盲人摸象○ 螳螂捕蟬◎ 言中有骨○ 且問且答◎ 一薰一蕕△
十常八九○ 三旬九食△ 三綱五倫○ 雲蒸龍變△ 知彼知己◎ 輪回轉生○ 吟風弄月○
邑犬群吠△ 先義後利○ 鳶飛魚躍△ 柔能制剛△ 千辛萬苦◎ 一暴十寒◎ 一龍一蛇△
一國三公△ 百折不屈△ 一罰百戒○

8) 竹林の七賢으로 쓰임.
9) 일어는 異口同音으로 쓰임.
10) 일어는 同床異夢으로 쓰임.
11) 일어는 半死半生으로 쓰임.
12) 일어는 一喜一憂.
13) 卵を以て石を擊つ로 쓰임.
14) 釜中の魚로 쓰임.

3. 한일 2국 통용(23항, 12.8%)

好事多魔◎[15] 七顚八起△ 三寒四溫◎ 右往左往◎ 沙上樓閣◎[16] 治山治水◎ 自繩自縛◎ 自業自得◎ 以心傳心◎ 利用厚生◎ 綸言如汗△ 移木之信◎[17] 膽大心小◎[18] 物我一體△ 水魚之交◎[19] 壺中天地◎[20] 眼中之人△ 一進一退◎ 一問一答◎ 天井不知◎[21] 五車(庫)之書◎ 氷炭不容◎[22] 柳綠花紅◎

4. 한국만 사용(38항, 21.1%)

多情佛心 千年一淸 十盲一杖 十匙一飯 權不十年 四面春風 乙丑甲子 玉石同匱 塵合泰山 根苗花實 知足知富 自行自止 以熱治熱 肉腐出蟲 以小成大 大奧大秘 脣齒之國 脣齒之勢 手足之愛 鳥足之血 氷炭之間 氷炭不容 小貪大失 生口不網 此日彼日 入耳出口 一人一技 鷄豚同社 福在積善 左之右之 莫上莫下 十伐之木 刻鵠類鶩 六尺之孤 耳目口鼻 物心一如 物我一體 群鷄一鶴

요약컨대, 180개의 임의 선택 4자성어 중 43%만 한중일 3국에서 통용되며, 25%는 한중 간에, 13%는 한일 간에, 21%는 한국에서만 사용된다.

1. 한중일 3국에서 통용(77항, 42.8%)
2. 한중 간에 통용(45항, 25.0%)
3. 한일 간에 통용(23항, 12.8%): 먼저 시작된 쪽은 별도 조사로 밝혀야 함.
4. 한국에서만 사용(38항, 21.1%): 한국에서 독자적으로 창작됨.[23]

---

15) 好事魔多し로 쓰임.
16) 砂上の楼閣로 쓰임.
17) 광사원(廣辭苑)에 "移木の信"로 실림.
18) 광사원에 "胆大心小"로 실림.
19) 광사원에 "水魚の交わり"로 실림.
20) 광사원에 "水魚の交わり"로 실림.
21) 광사원에 "天上知らず"로 실림.
22) 氷炭相容れず로 쓰임.
23) 현재도 '離富亡川(이혼하면 부천, 망하면 인천)'이나 심지어 한자 아닌 부분도 넣어 '내로남不' 같은 4자성어를 생산해 내고 있다.

위에서 2와 3은 예비 연구에 비해 그 위상이 서로 바뀌었다. 예비 연구에서 한국과 일본 간에 높은 통용율이 일어난 이유를 천착하려 했으나 이제 별 필요가 없게 되었다. 다만 한일 간에 통용되는 4자성어가 각기 어느 쪽에서 먼저 시작 되었나를 밝혀 놓는 작업은 의미가 있을 것이다.

참고문헌

김한배(2006) 우리말을 좀먹는 우리말 속의 일본말, 서울: 동언미디어.

이윤옥(2010) 국어사전 속 숨은 일본말 찾기: 사쿠라 훈민정음, 서울: 인물과 사상사.

이한섭(2014) 일본어에서 온 우리말 사전, 서울: 고려대 출판부.

광사원(廣辭苑, 고지엔, 1955), 동경: 岩波書店. 고지엔 6판의 한국어번역본(2012), 서울: 어문학사.

일본 국어대사전(제2판, 전14권, 2003), 동경: 小學館,

Tsou, Benjamin K. (2012) Idiomaticity and Classical Traditions in Some East Asian Languages, PACLIC-26 Bali, November 8-10, 2012. p.46.

https://www.mdbg.net/Chinese/dictionary

후주(後註): 다음과 같은 4자성어 예들을 두 관련 서적에서 더 찾아 볼 수 있다.

1) 이윤옥(2010) 국어사전 속 숨은 일본말 찾기: 사쿠라 훈민정음, 서울: 인물과 사상사.

서정쇄신(庶政刷新)는 일본 강점기에 들어온 말.

신토불이(身土不二)라는 개념은 원나라 때 노산연종보감(盧山蓮宗寶鑑)에 보이나, 4자성어로는 1907년 일본 육군 식양회(食養會)에서 처음 사용하였다 함.

애매모호(曖昧模糊)는 일본 강점기에 들어온 말로 세종실록 83권에는 사다모릉(事多模稜)이라 했던 말.

전지훈련(轉地訓鍊)은 일본 강점기에 들어온 말.

2) 김한배(2006) 우리말을 좀먹는 우리말 속의 일본말, 서울: 동언미디어.

갑종합격(甲種合格)은 일본 강점기에 들어온 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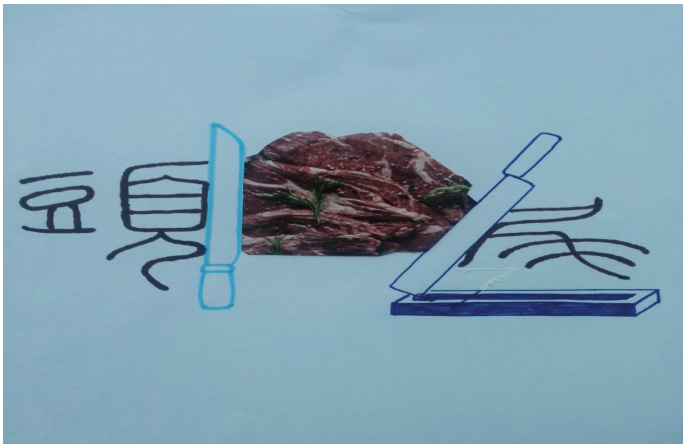
일생현명(一生懸命)은 일본 강점기에 들어온 말. '잇쇼겐메이'라고 일본어 발음으로 직접 한국어 속에 쓰는 경우가 노년층에 있음. '목숨을 걸고 일을 한다'는 뜻으로 중국에서는 안 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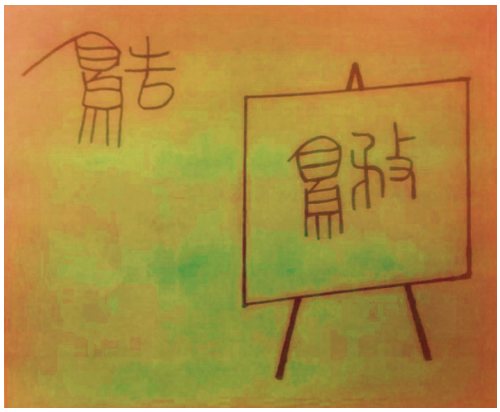
일석이조(一石二鳥)는 1862년 일본 '영화대역수진사서(英和對譯袖珍辭書)에 영어속담 to kill two birds with one stone을 처음 개념적으로 번역해 넣었다가 막부 말기의 한 한학자가 4자성어로 만들었다 함. [필자 주] 그러나 중국어에서도 일석이조가 일거양득(一擧兩得)과 같이 씀.

정정당당(正正堂堂)은 正正, 堂堂 두 자씩은 중국어에서도 쓰이나 4자성어로는 안 쓰이니, 이는 일본 강점기에 들어온 말.

부록: 고사성어 도해

四分五裂(사분오열)
여러 갈래로 갈기갈기 찢어짐을 뜻한다.



去頭截尾(거두절미)
머리와 꼬리를 자른다는 뜻으로, 앞뒤의 잔사설을 빼고 요점만을 말한다.

刻鵠類鶩(각곡유목)
따오기(鵠)를 그리려다 비슷한
집오리(鶩)를 그린다.
(남을 본받아 배워서 다소나마 보람이 있다.)